

■ 교회소식 ■

1. **구역회** : 구역회가 오늘 오후 1:30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속장이 참석대상자입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2. **선교회** : 구역회의 참석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자유롭게 선교회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은 예배 후 재무부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4. **주차** :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실 때 다른 차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바르게 주차해주시시오.
5. **주차봉사** :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장영숙 전도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주일 아침 10:20~11:00, 연 2회)
6. **저금통** : 사랑의 빵 저금통 모금 금액이 1,143,390원이 모였습니다. 전액 월드비전에 전달했습니다. 이주민 돕기를 위한 오뎅이 저금통을 새로 나누어 드립니다. 이 저금통은 부활절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7. **신앙실천** : 추운 겨울을 힘겹게 지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사랑의 온기를 전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행6: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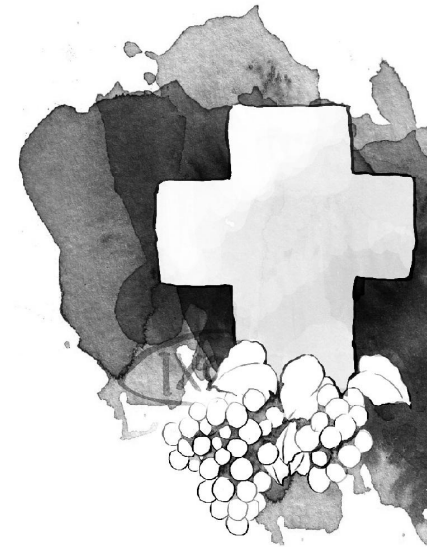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정민 장로	박시내 집사

1부 영접위원	박미연	헌금위원	하현철
1월 2부 영접위원	한완식 임주빈	이순용 고숙이 최현옥 김신실	
2부 헌금위원		김인걸 정영선	

오늘 식당 봉사 안홍숙 이증자 이수정 노성희 신현숙 최재욱 임선양 홍순구  
 다음주식당봉사 이소애 이소혜 박유경 김지현 김해선 남인자 강세기 김성우  
 오늘설거지봉사 6여선교회(41-4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청년부  
 커피 판매 봉사 5여선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주현 후 2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 반주자
-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X3) .....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10. 전능왕 오셔서 .....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마다 마음을 되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 영혼의 불빛을 밝게 유지하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내어놓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추운 날씨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이 박스 하나에 의지해 추운 겨울밤을 보내야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십시오. 난방비 걱정에도 보일러도 켜지 못하고 겨울을 지내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 마 5:8,9 ..... 인도자
- ▲ 교 독 문 ..... 122. 주현절(2) ..... 다 함께
-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 김인걸 장로
- 2부응답송 ..... 찬양대
- 2부찬양 ..... 299. 하나님 사랑은 ..... 다 함께
- ▲ 성경봉독 ..... 히 6:1-8 ..... I. 인도자  
II. 강세기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 2부찬양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찬양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신철	이혜경	고속이	곽정자	구명자	국지연	권미정	권혁순	순영순
박해경	김경희	김기홍	김기석	김희우	김남우	명오복	김명일	김시은	김영재	김재홍
김영희	김영길	김영희	김용진	박효선	김남우	오복상	김명일	김은현	김재홍	김재홍
최희영	김진영	최숙화	김종문	지영주	김남우	김순수	김명일	김은현	김재홍	김재홍
유경순	김진영	박홍재	노진래	최형희	류경희	김현주	김명일	김은현	김재홍	김재홍
박기원	이미영	박미연	박시내	박영희	박예민	박옥순	김명일	김은현	김재홍	김재홍
박창운	허정윤	방문경	박혜경	배삼순	백현모	유순덕	김명일	김은현	김재홍	김재홍
설규범	송효진	양경인	오진훈	노순옥	우신영	유봉우	김명일	김은현	김재홍	김재홍
윤정덕	구성실	양종인	이광용	이근식	신영신	이재문	김명일	김은현	김재홍	김재홍
김신실	이완영	송상경	이우상	이계월	이인용	이재문	김명일	김은현	김재홍	김재홍
이현숙	임영	정경래	전영린	김행자	정연희	정연희	김명일	김은현	김재홍	김재홍
정종삼	정호순	양순임	정민경	정현숙	조관행	홍선희	김명일	김은현	김재홍	김재홍
조순덕	조영순	조항범	오현정	최석규	최원순	최원순	김명일	김은현	김재홍	김재홍
한완식	임정자	허호범	박성실	황경순	황원순	황원순	김명일	김은현	김재홍	김재홍

### 감사헌금

김수진	김시영	김양태	최원정	김준호	곽해자	방경선	서효진	안성호	김희숙
양보람	이교임	이은혜	이재은	임선양	신현숙	임승동	백혜숙	장승희	장영숙
허성호	진은혜	홍성식	이유리	무명10					

녹색꿈헌금 김성수 임설희 정효진 무명3

생일감사헌금 박재영 이현정 이미혜

##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구역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f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울고 들어온 너에게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엉덩이를 밑으로 두 손 넣고

엉덩이를 들었다봤다 되작거리다보면

손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그러면 나는

꽝꽝 언 들을 해매다 들어온

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 김용택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	.....	믿음의 성숙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2부찬양	.....	452.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	다 함께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초보적 단계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자라고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노력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늘 얇은 물가에 머물 뿐 깊고 넓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좀더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준 모습을 지표 삼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 다른 길 1

### 라당의 여인들

[사진] 인도네시아. 라당 마을의 여인들이 비탈진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다.

올해는 감자 수확이 좋지 않지만  
라당의 여인들은 우울해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밭을 오르내리면서도  
소녀처럼 경쾌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대화한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죠.  
풍년에는 벼풀 수 있어 좋고  
흉년에는 기댈 수 있어 좋고  
우리는 그저 사랑을 하고 웃음을 짓는 거죠.”

### 파도 속에 심은 나무가 숲을 이루다

[사진] 인도네시아. 아체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노을을 맞으며 해변에 어린 나무를 심고 있다.

2004년, 쓰나미가 아체 주민 수십만 명을 쓸어갔을 때  
울렐르 마을은 가장 먼저 해일이 덮치고  
가장 처참히 파괴된 거대한 폐허의 무덤이었다.  
당시 울렐르 마을의 스물다섯 살 청년 사파हत은  
손가락만한 한 나무를 홀로 바닷물 속에 심고 있었다.  
“이 어린 바까오 나무가 지진 해일을 막아줄 순 없겠지요.  
하지만 자꾸 절망하려는 제 마음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무릎을 꿇고 나무를 심던 사파हत은 끝내 파도처럼 흐느꼈다.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나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가느란 바까오 나무가 파도 속에 자라나 숲을 이루었고,  
그는 오늘도 붉은 노을 속에 어린 바까오를 심어가고 있었다.  
절망의 바닥에서 자라나지 않은 것은 희망이 아니지 않느냐고,  
파도는 끝이 없을지라도 나는 날마다 나무를 심어갈 것이라고.

### 구름이 머무는 마을

[사진] 파키스탄. 멀리 설산을 뒤로한 작은 집 앞에 두 사람이 마주 서 있다.

눈부신 만년설산의 품에 안긴 작은 마을  
이곳은 너무 높고 너무 춥고 척박한 땅  
구름도 고개 돌려 잠시 머물다 길을 떠난다.  
손수 지은 흙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부부는  
“나라와 부모를 선택해 태어날 수는 없지요.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음’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찌할 수 있음’은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화롯불을 피워 따뜻한 차와 미소를 건네고  
가슴에 만년설 봉우리 하나 품고 가라며  
빨간 사과 한 보따리를 안겨 주신다.

### 파슈툰 소년의 눈동자

[사진] 파키스탄. 중학생쯤 되 보이는 두 소년이 전혀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10년 넘게 계속되는 미국의 침공 속에 자라난  
파슈툰 아이들은 눈빛부터 다르다.  
한 생애 겪을 고통과 비극을 다 보아버린 눈동자.  
만년설산이 들어박힌 저 푸른 눈빛, 아니 푸른 불꽃.  
부모를 잃은 어린 가장인 알람샤를 안아주자  
만년설이 녹아내리듯 소리 없이 긴 눈물을 흘린다.  
나는 한번만이라도 이 아이들의 웃는 모습과  
소리 내어 우는 모습을 보기를 바랐다.  
눈물 젖은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나는 신神을 본다.  
거대한 성전이 아닌 이 눈동자에서 신을 만난다.